[성 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계신총회보

발 행 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 행 인: 채 희 근
편 집 인: 윤 성 천
전 화: 0502-604-0691
팩 스: 0303-0944-2936

2023년 4월 1일 (토)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37호 1

제200회 목회연수회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3시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제 200회 목회 연수회가 있었다. 회장 남성호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180장 제창 후 한기삼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이어서 회장은 요한계시록 2:10을 통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는 말씀을 마치고 임원 개선에 들어가 회장 조영훈 목사, 서기 홍진욱 목사, 부서기 박재송 목사, 회계 조충연 목사, 부회계 오영동 목사로 개선되었다.

교역자 이동보고에서 전성현 목사는 가락동부교회 부교역자에서 예수사랑교회 담임교역자로, 이정행 목사는 송탄북부교회 부교역자에서 용인 신정교회 담임교역자로, 강희정 목사는 초부리교회 담임교역자로, 윤성천 목사는 탄방교회 부교역자로, 인성 목사는 영화교회 부교역자에서 포천 진성교회 담임교역자로, 박경호 목사는 상대원교회 부교역자에서 이매중앙교회 부교역자로, 임요셉 목사는 중국 청도 반석교회에서 북대전 장로교회 임시 교역자로 이동하였음을 각각 보고하였다.

각 교회 보고에서 용인 신정교회 정양곤 목사는 2023년 2월28일 은퇴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림을, 용인 동부교회 김종옥 목사는 교회 이전 및 공사 완료와 교회 이름을 새은혜 교회로 개명함을, 한빛교회 석균태 목사는 2023년 4월1일 은퇴감사예배를 드림과 후임목사는 임요셉 목사임을 각각 보고하였다.

선교보고에서 선교부장 홍한기 목사는 니카라과 김성헌 선교사의 딸 김예린의 수술 경과와 우크라이나 최광순 선교사의 근황을 보고 및 기도 부탁하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독려하였다.

기사 홍진욱 목사

총회장

부활절 인사 말씀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시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총회 산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아담의 죄 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죽음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나고,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즉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한 번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의 부활에 참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에 참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예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열매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의 소지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예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성도와 같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저 영원한 지옥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결코 정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은 한번 죽지만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예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긴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라는 이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약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

-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배우는 곳
- 영성과 지성과 인격성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길
- 역사와 전통이 있음(1967년 설립)

• 과정
▷ 성경연구과정(8학기)
▷ 신학연구과정(6학기)
▷ 여성은 성경연구과정을 마친 후 여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좋은 제도
▷ 입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 지급
▷ 학사 자격증이 있고 55세 이하인 남학생은 신학연구과정을 마치면, 교육부 인가받은 신학석사(Th.M)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함
▷ 지방의 학생들은 온라인강의로 공부할 수 있음
▷ 졸업생은 강도사 고시 후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선교 사명이 있는 자는 졸업후 파송받을 수 있음

• 입학시험
▷ 날짜: 상시모집
▷ 면접: 개별면담
▷ 장소: 본원 사무실

• 입학 및 진로상담
이사장: 이용주 목사(전 총회장) 010-8781-7471

• 교무처
간사: 유신승 010-3790-0159
홈페이지: www.kyeyak.co.kr
이메일: kyeyak1967@gmail.com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6(혜화동 로타리)

연구원장: 장백준 박사(Th.D)
명예원장: 박황우 박사(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설 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사무엘상 6:19-21

김현기 목사
동광교회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에 놓았다가 다곤 신이 머리과 두 손이 잘려서 몸통만 남는 일이 있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보다가 오만 칠십명이 죽었는데 본문 20절에 벳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귀한 일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십계명도 지킬 수 있고 믿는 일을 잘할 수 있다.

一. 언약궤가 무엇인가?

1.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아카시아나무로 궤를 만들어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입히고 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석,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고(히 9:4-5) 그 위에는 속죄 판을 만들어 그룹들의 날개가 양쪽에서 서로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언약궤 속죄판(속죄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판에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한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생명력을 가리키고,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신령한 양식을 의미한다. 교회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곳이다.

二. 언약궤를 잘못 다룬 사람들

1. 언약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이전에 조상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하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많이 상징하는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용하려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하려는 사람만 어려움을 당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2. 언약궤를 짓밟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는데,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몸통만 남아 있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가 역사하여 교회를 아주 짓밟는다. 그런데 교회가 짓밟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자유를 빼앗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세력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도와줘야지 막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서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못 나가도록 하므로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지도록 하신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6절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은 어떡하느냐? 불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물이 변해 피가 된다. 행복이 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누구라도 교회를 손해를 끼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탄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흑암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두운 말, 어두운 행동을 하므로 사회가 경직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워진다.

3.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한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이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니 너무 기뻐서 언약궤 안을 보다가 오만 칠십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조심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가 싫은 게 아니다. 너무 좋아서 언약궤 안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삼가 조심 안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교훈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나와서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

당회, 노회, 총회 때 큰소리친 사람이 결과가 안 좋다. 큰 소리가 나오는 자체가 저주가 임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 큰 소리가 나온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아주 조심히 올라가신다. 강대상은 나무로 만든 궤짝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신 것 같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소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흔들릴 때 사람이 교회를 붙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

三.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사무엘상 7장에 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고 한다(삼상 7:9).

어린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요 1:29)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을 예표 한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데로 행하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사고도 생기므로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사무엘상 8장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9장에 왕을 세워서, 장차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세운 사울왕은 실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

2.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이십 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을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2절-13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역대하 15장 2절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이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3.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자.

신약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앞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네"로 "얼굴, 면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민수기 6장 24-26절에 축복을 할 때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시고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얼굴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의식하며 주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삼가 조심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화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는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고 부모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고 한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 온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중대한 과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중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고, 일처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고민하고 조심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여 일처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는 암흑시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고 가치관의 혼돈이 와서 혼란한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운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두 번이나 진다.

형제 끼리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끼리 싸울 수 없다. 서로 지체인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며 평화가 깃들이도록 하신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들의 숙제이다.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논 단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야 할 이유

박봉일 목사
북일교회

국회사무처가 2022년 12월 19일 발표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 대상 법률 현황 2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입법개선 촉구를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한 법률이 41건이라고 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형법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인데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러한 낙태법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허락할 수 없는 악법이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논해 보고자 한다.

1. 낙태법 폐지란

낙태법은 형법:제269조(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로 되어 있다(출처: 기독일보,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교단/입력 2021. 01. 02 13:20).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락한다고 되어있다(출처: 낙태합법화 언제부터 가능한지 살피며|작성자 워커힐여성의원).

이러한 낙태법이 2019년 4월 11일에 위헌으로 판결되어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임신 14주 이내 전면 낙태 허용 △15~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이 특히 논란이 됐다. 이러한 낙태법은 지금은 그렇다고 합법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다(출처: 방치된 낙태죄 개선 입법 유감|작성자 변호사 이동호).

2. 낙태법 폐지에 대한 논란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쟁의 한쪽은 '생명 우선론자(Pro-Life)'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급진적인 '선택 우선론자(Pro-Choice)'가 있다. 생명 우선론자(Pro-Life): '생명 우선론자'들은 인간 유기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을 갖는 '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는 태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 우선론자'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생긴 단세포 유기체인 '접합체(Zygote)'를 신성시하며, '접합체'나 '배아' 또는 '태아'를 직간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속한다.

선택 우선론자(Pro-Choice): 급진적인 '선택 우선론자'들은 임신한 여성은 신체적 자주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이미 갖고 있고 본인이 원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신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 우선론자'는 유기체가 인격이 되는 시기는 자궁을 떠나 모체가 제공하는 생명 유지 장치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라고 믿는다.

이러한 '생명 우선론자'들과 '선택 우선론자'들간의 주장은 지금도 팽팽하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지속되는 중이다(출처: 낙태합법화 언제부터 가능한지 살피며|작성자 워커힐여성의원).

3.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야 할 이유

1)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성경과 반대가 되는 악법

낙태 반대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은 눅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22:10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9: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란 말씀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생명체가 되는 시기가 출생 이후가 아니라 출생 이전인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로부터 출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낙태는 부모에 의해서 살해하는 살인죄가 됨으로 낙태법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드릴 수 없는 악법이다.

2)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악법

한국에서 낙태는 매일 3,000명, 일 년에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된다(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낙태죄로 기소된 건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낙태는 부모에 의해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를 찢어 끄집어내 버린다는 것은 문명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다.

3) 과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에도 악법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며 내 몸의 세포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는 종교적·윤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과학에서는 생명의 필수요건 4 가지, 즉 물질대사(Metabolism) 여부, 성장 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호르몬에 대한 반응도 포함), 재생산 속성 여부를 갖고 생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태아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생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 유전자배열이 완성되며 성별과 머리색, 신체의 각종 특징들이 결정된다. 동물과 동일했던 유전자가 자궁 내에서 자라며 인간의 유전자배열로 변이되는 게 아니다. 부모와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별개의 인간이 수정 순간에 이미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므로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도 낙태죄 폐지는 악법이다.

4) 산모의 낙태 후유증에서 볼 때도 악법

인위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10개월간의 임신과 출산보다 산모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다. 강제로 자궁내막에 착상되어 있는 태아를 박리하여 배출시키므로 자궁에 상처와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후유증으로 1. 자궁천공의 가능성 2. 자궁 경부 무력증 발생 3. 골반에 염증성 질환 발생 4. 자궁 외 임신 가능성 발생 5. 추후 임신 시 나쁜 영향 발생 6. 정신적인 스트레스 7. 낙태후에도 산후풍 발생한다(출처: 임신산모클리닉성남 낙태수술 후유증, 프로파일 변정현원장 2022. 11. 17. 9:55.)

이와 같은 낙태 휴유증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임신 중에 있는 산모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낙태법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다.

5) 인구의 감소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는 악법

OECD 국가 중 자살률, 낙태율 1위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통계청 2022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라고 하며, 2055년에 가면 50만명대로 감소될 것이고, 한국의 총인구는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엄청난 사회적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첫째는,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에게도 큰 짐이 된다. 이는 노동력 있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출산율 감소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국방태세 혼란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상태로 인구가 감소되면 군인을 양성하기 힘들게 된다. 셋째는, 낙태법 폐지로 인해서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존속에 절대 위기를 가져오는 악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낙태법 폐지법은 첫째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기원이 모태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에서 볼 때 태아 살인법이 됨으로 악법이며, 둘째는, 낙태법 폐지는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태아들이 자신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회적 윤리에서 볼 때 악법이며, 셋째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사람의 육체가 태아의 시절에 완전히 형성됨으로 낙태법 폐지는 악법이며, 넷째는, 낙태법 폐지는 낙태 후 휴유증이 심각함으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낙태법은 악법이며, 마지막으로 낙태법의 폐지는 낙태로 인하여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되어 다음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크고, 국방력이 감소됨으로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력 약화로 국가의 존속위기를 가져오는 악법이 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야 한다.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와서

남기영 전도사

제43회 교역자 수양회가 2월 20-23일, 3박 4일간 명성수양관에서 열렸다. 명성수양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작년에는 온 사방이 단풍으로 감동의 절정을 이루었던 터라 '2월의 수양관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또 다른 기대와 설렘으로 향했다. 역시 치악산 자락에서 품어 나오는 웅장함과 청량함은 나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 기대함으로 시작된 수양회의 느낀 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먼저, 따뜻한 섬김이다.

숙소 1층 데스크에서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와 스스로 챙겨갈 수 있도록 구비된 핸드북과 상비약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총회원들의 수고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하루 2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식사에 대한 염려는 몇몇 교회에서 제공한 간식으로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다. 특히 장로회에서 선물로주신 양말은 그 따뜻함이 오래 갈 것 같다. 밖은 분명 차가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춥지 않은 따뜻한 섬김이 있었다.

둘째는 변화이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새벽예배가 없었다는 것이다. 계신교단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임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자율적인 기도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룸메이트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었으나 자율적으로 새벽, 밤 할 것 없이 3-4시간을 추운 본당에서 기도하며 즐겁게 3박 4일을 지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이셨는데 변화에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도 시대적 변화에 유연함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음에 고무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열정이다.

수양회 강사로 나오신 은퇴목사님들의 힘있는 말씀과 후배 교역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 전해졌다. 그리고 특강에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이 강의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들었다. 또한 그곳의 날씨가 새벽에는 영하 8-10도까지 내려가는 차가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쳐져 있는 텐트와 개인기도실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 매서운 추위도 하나님께로 향한 교역자들의 열정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하튼 교역자 수양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은퇴 목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타교회 교역자들간의 교제도 매우 유익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힐링하는 이런 만남은 일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회이기에 수양회가 주는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수양회는 우리 교단이 가지는 유익한 전통으로 계승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번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200회 목회연수회 신구 임원

신임원 명단: 회장 조영훈 목사, 서기 홍진욱 목사, 부서기 박재송 목사, 회계 조충연 목사, 부회계 오영동 목사

신정교회

원로목사추대·담임목사취임 감사예배

2023년 2월 28일(화) 오후 1시에 신정교회에서 '원로목사추대 및 담임목사취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부에는 이정행목사(신정교회담임)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박세덕목사(명륜교회담임)의 기도와 나은기목사(강원노회장)의 성경봉독과 총회장 채희근목사가 역대상 28장 1-10을 중심으로 '다윗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다.

2부에는 김정경목사(총무, 우신교회담임)가 사회를 맡아 원로목사추대 예식을 진행하였다. 사회자는 정양곤목사가 신정교회의 원로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였다. 고석남목사(명륜교회 원로목사)가 축사를 하고 후임 목사인 이정행목사가 추대패를 증정하였다. 이에 정양곤목사(신정교회 원로목사)가 답사로 화답하였다.

3부에는 담임목사취임예식이 있었다. 이정행목사는 회중 앞에서 신정교회의 담임목사로 충성할 것을 서약하였고, 신정교회 교인들도 함께 잘 도울 것을 서약하였다.

사회자는 이정행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 됨을 선언하고 유영길목사(상대원교회담임)가 축사를, 이용주목사(송탄북부교회담임)가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정행목사는 취임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회중 앞에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조봉천장로(신정교회장로)가 인사와 광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창옥목사(성산교회 원로목사)가 축도함으로 신정교회 '원로목사추대 및 담임목사취임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

기사 이정행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

계약신학연구원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

2023학년도 계약신학연구원(이하 신학원) 1학기 개강예배가 3월 6일(월) 오후 6시에 명륜교회에서 신임 원장 장백준 목사(초월교회)의 사회로 있었다. 운영위원회 서기 홍진욱 목사(임학성광교회)의 기도에 이어 강도를 맡은 운영위원장 이용주 목사(송탄북부교회)는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후 명예원장 박황우 목사(가락동부교회)의 격려사와 총회장 채희근 목사(도봉교회)의 축도로 개강 예배를 마쳤다.

1학기 종강예배는 6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명륜교회에서 한다.

기사 유신승 전도사